

사회관계망이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결혼식 방명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교*

I. 서론	2. 부조액
1. 연구목적	IV. 당사자의 관계망과 상호부조
2. 연구내용	1. 부조자수
3. 연구방법	2. 부조액
II. 본 연구의 분석틀	V. 부모의 관계망과 상호부조
1. 연구 분석틀	1. 부조자수
2. 조사대상자	2. 부조액
III. 혈연망과 상호부조	VI. 결 론
1. 부조자수	

I. 서론

1. 연구목적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이고,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며, 기존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데, 전반적으로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사업 등 전통적인 개념에서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 현대적인 개념으로 변화된다고 한다.¹⁾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사회복지법인등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나 정부의 복지정책을 주로 다루고 상호부조, 인보사업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였다. 또한 상호부조를 다루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거나 제도중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1) 김영모, 현대사회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3, P. 277.

심적이었다. 즉 상호부조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전통사회에서는 계, 향약, 두레, 품앗이등 미풍양속이 있어서 인간의 욕구와 문제가 “이웃의 정”으로 해결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미풍양속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감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의 상호부조에 대한 복지학의 관심은 매우 낮아서, 상호부조를 정부와 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복지활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불우이웃돕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지향하는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라면, 복지학도는 먼저 가족과 시장의 보호기능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를 계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상호부조가 혈연,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등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관계망이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사회관계망이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관계망이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한다.

둘째, 결혼식에서의 부조자수를 사회관계망별로 파악한다.

셋째, 결혼식에서의 부조액을 사회관계망별로 파악한다.

넷째, 당사자의 특성별로 부조자수와 부조액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부모의 특성별로 부조자수와 부조액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여섯째,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의 변화양상을 탐색한다.

3. 연구방법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결혼식방명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조사는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상호부조와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결혼식방명록의 조사는 1989년 5월부터 6월까지 중앙대학교에서 필자의 사회학강좌를 듣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본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나 종형제의 결혼식방명록등을 분석한 것을 취합한 것이다.²⁾

방명록의 분석은 먼저 부조자와 결혼당사자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혈연, 지연, 학연, 직연, 종교연 등으로 세분하여 사회관계망별로 부조자수와 부조액을 통계표로 제시하게 하고, 덧붙여서 당사자의 성별, 결혼연령, 학력 등 일반적 성격과 부모의 특성, 예식과 결혼과정등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취합된 방명록과 방명록의 분석표는 철저한 편집과정을 거치면서 부조자의 사회관계망 파악이 부실한 것을 제외시키고, 사전에 훈련된 보조연구원이 169 사례를 부호화하여 자료로 입력하였다. 입력된 자료중에서 부조액의 화폐가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8년과 1989년도에 결혼한 82사례(각각 50사례, 32사례)만을 분석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량분석등을 하였다.

II. 본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분석틀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에 관한 기존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친족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친족의 상호부조를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뿐이다.

친족의 상호부조에 관한 기존연구중에서 최재석과 이광자의 논문등이 돋보인다.³⁾ 최재석은 서울시 중류 아파트 가족의 주부의 입장에서 본 친족관계를 친족의 유무와 인지정도, 친족의 접촉빈도, 친족관계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친족관계의 내용은 사교, 가사협조, 공동사업, 의례적 관계로 세분되고 그중에서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와 관련된 것은 “길흉사에 방문인사한다”와 “길흉사에 일을 거들어 준다”이다.

2) 본연구에서 분석된 결혼식방명록의 당사자(신랑 혹은 신부)는 이를 분석한 학생과 형제자매간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종형제(30.5%), 숙질(6.1%), 당질(4.9%)간 등의 순으로, 전체의 83.1%가 근친간이고 나머지도 본인, 처, 친구의 형제자매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친족의 상호부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985, PP. 229-258.

이광자,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1971.

그는 이러한 의례적 관계가 부계와 처계의 친족(촌수)간, 친정부모와 시부모간, 시가친족과 친정친족간, 세대간, 남녀간, 거주지 원근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가족의 “길흉사”는 출산, 돌, 생일, 취업, 승진, 결혼, 회갑등 길사와 질병, 수재, 화재, 사고, 사망등 흉사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문인사”의 경우 그 “질”을 알 수 없다.

이광자는 도시중산층 핵가족의 부부를 대상으로 각 가족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친족망의 범위와 접촉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비친족망의 접촉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는 친족의 범위를 근친과 원친으로 나누고 다시 근친은 1~4차 친족으로 세분하였으며 비혈족망은 이웃, 동창, 친지로 구분하였다. 조사된 활동은 사회적 활동, 도움관계, 의례적 관계로 유형화 하였다.

그녀는 도시중산층 핵가족의 친족망의 범위와 접촉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집단간의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분석한 의례적 관계에는 설, 추석, 성탄절, 생신의 인사와 명절제사와 기제사의 참석등만을 포함하고 결혼식을 제외하였으며 비친족망의 의례적 관계를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결혼식에서 부조자수와 부조액을 통하여 친족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관계망별 상호부조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을 <표 1>과 같이 혈연망, 결혼당사자의 관계망, 부모의 관계망으로 대별하고, 혈연망은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 종형제자매로 나누고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망은 학연, 직연, 지연, 종교연으로 세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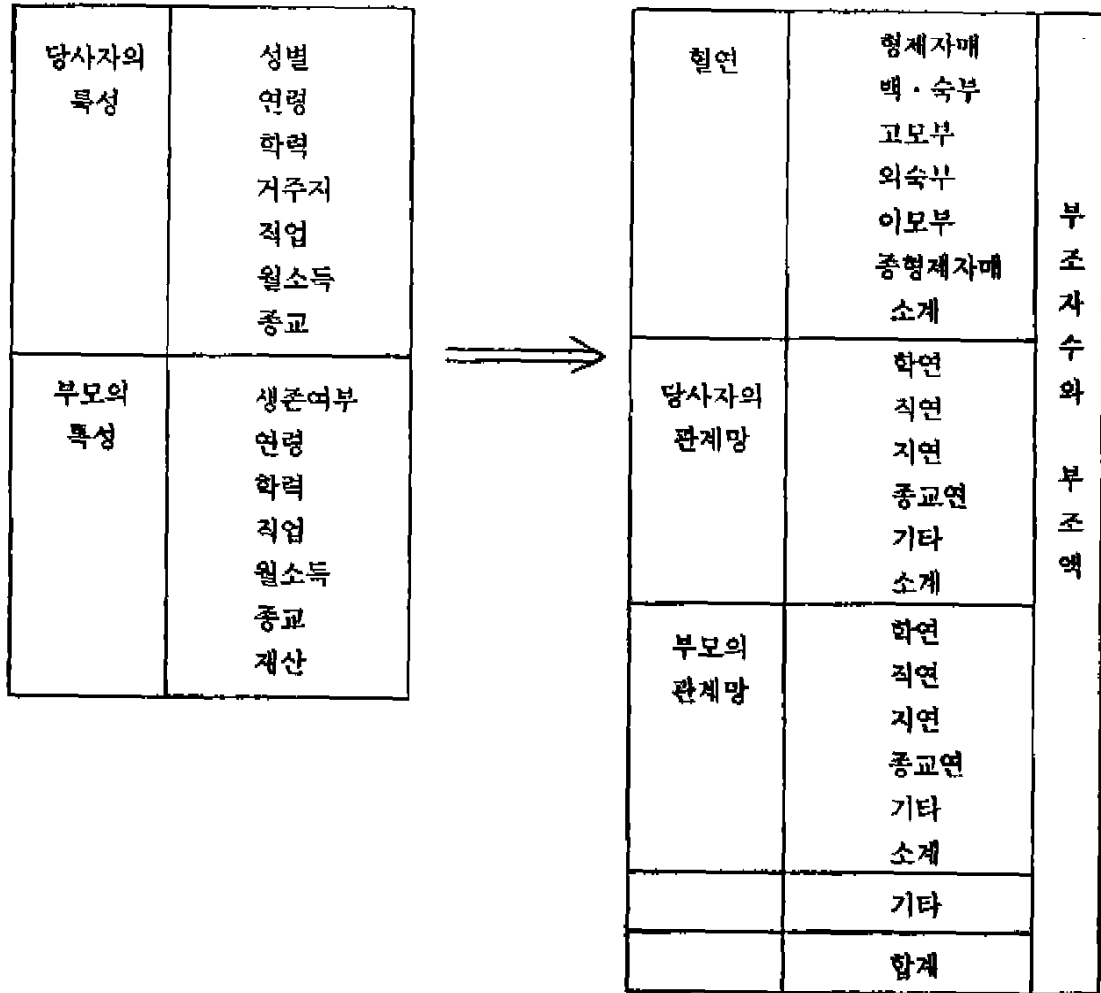
- 4) 최재석은 친족을 부계친과 처계친으로 대별하고 다시 부계친은 시부모, 시숙, 시동생, 시백숙부, 시사촌, 시오촌, 시육촌, 시칠촌, 시팔촌, 시누이, 시고모, 시교종사촌, 시외조부모, 시외삼촌, 시외사촌, 시외오촌, 시외육촌, 시이모, 시이종사촌으로 세분하며 처계친은 친정부모, 친정형제, 친정자매, 친정고모, 친정백숙부로 세분하였다.

최재석, 앞의 책, P. 239 참조.

이광자는 친족을 근친과 원친으로 나누고 근친은 1~4차 친족으로 구분하였다. 즉 부모, 형제는 1차친족이고, 삼촌, 사촌, 고모는 2차친족, 외삼촌, 외사촌, 이모는 3차친족, 오·육촌은 4차친족, 7촌이상은 5차친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광자, 앞의 논문, P. 45 참조.

본 연구는 5촌이상의 친족은 친족간의 접촉빈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그 질이 악화된다는 기존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혈연망은 4촌이내로 제한하고 5촌이상은 부모의 관계망에 포함시켰다.

〈표1〉 본 연구의 분석틀



결혼식에서의 부조자수와 부조액이 당사자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월소득, 종교와 부모의 생존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 재산에 따라서 부조자수와 부조액을 측정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망별 부조자수와 부조액을 분석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결과 같다.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결혼당사자와 그 부모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혼 당사자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과 연령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대도시 거주자가 다소 많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평균이상 소득의 종교인이 다소 많다.

〈표 2〉 결혼 당사자의 일반적 성격

(단위 : %)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52.4	47.6				32.9	34.2	32.9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무응답
	37.8	62.2				8.5	28.0	62.2	1.2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9.8	76.8	3.7	9.8		32.9	30.5	36.6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31.7	9.8	21.7	1.2	36.6				

결혼당사자의 부모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생존여부와 연령은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고 월소득과 재산이 평균이상인 사람이 다소 많고, 종교를 가진 자영업주와 고용주가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결혼당사자와 그 부모의 일반적 성격이 전국 평균치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관계망이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부모의 일반적 성격

(단위 : %)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76.8	19.5	3.7			36.6	41.2	17.1	6.1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34.1	37.8	28.0			17.1	39.0	21.7	15.9	7.3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이상	무응답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23.1	28.1	19.5	29.3		22.0	8.5	34.1	1.2	28.0	6.1
재산	5천만원이하	6~2 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23.3	21.9	17.1	31.7							

Ⅲ. 혈연망과 상호부조

1. 부조자수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혈연관계로 부조한 사람의 평균치는 17명으로 전체 평균 부조자 151명의 11.3%를 차지한다.

혈연망의 평균부조자수는 〈표 4〉와 같이 당사자의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 등 3촌이내의 친척은 1~2명씩이고 종형제·자매는 9명이다.

〈표4〉 혈연관계별 부조자 수

(단위 : 명)

혈 연 \ 부조자 수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형제자매	0.83	1.26	0	5
백·숙부	2.04	2.02	0	8
고모부	1.55	1.27	0	5
외숙부	1.79	1.45	0	7
이모부	1.76	1.40	0	6
종형제자매	9.38	9.22	0	40
소 계	17.35	11.72	1	70

〈표5〉 당사자의 특성별 혈연관계 평균 부조자 수

(단위 : 명)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17	18					15	18	19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18	17					14	17	18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7	18	9	13		17	19	17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18	14	22	10	16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진 형제자매와 결혼을 한 3촌이내의 친척은 부조를 하고 종형제의 경우에도 결혼을 하면 형편에 따라서 부조를 하기 때문에 혈연망의 부조자수는 혈연관계(촌수)별로 친척의 수와 친척의 결혼여부에 달려 있다. 당사자와 부모의 특성별로 혈연망의 부조자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사자의 특성별로 혈연 부조자수를 보면 거주지가 대도시일수록 혈연 부조자수가 많고,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변수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혈연관계(촌수)별로 세분하여 보면 이모부의 경우는 당사자의 학력이 대졸이고, 대도시에 거주할 때 부조자수가 증가되고 종형제의 경우는 불교, 기독교, 무종교의 순으로 부조자수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혈연의 경우 촌수와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서 부조자수가 거의 변화되지 않고 다만 학력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외척의 부조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친척과 외척간에 부조자수에 차이가 없고 4촌을 넘어서면 친척의 부조

자는 급속히 감소되어 흔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부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특성별로 혈연, 부조자수를 보면 <표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생존여부가 주요 변수이고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에 따라서는 부조자수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혈연관계별로 세분하여 보면 형제자매는 편친이거나 부모의 연세가 많을수록 부조자가 증가되고 역으로 고모부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모부가 많은 것은 당사자의 경우와 일치된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감소될수록 형제자매의 부양(보호)기능이 강화되고, 역으로 고모부 등 가까운 친척은 당사자의 부모와 함께 나이가 들고 사망하게 되면 상호부조의 질이 급속히 감소됨을 보여준다.

<표 6> 부모의 특성별 혈연관계 평균부조자 수

(단위: 명)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16	23	14		20	16	17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15	19	18		17	17	18		19	17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이상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14	21	15		18	17	15	18	10	16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17	20	20	15						

<표 7> 혈연관계별 부조자 수의 유의도

혈연	부모의 특성	생존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	재산
형제자매		3.0506 **	2.5947*					
백·숙부								
고모부		3.0065 **	2.9029*					
외숙부								
이모부				5.0742***				
종형제자매								
소 계		2.5904*						

* < 0.1 ** < 0.05 *** < 0.01

2. 부조액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혈연관계로 부조된 부조액의 평균치는 97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조액 347만원의 28.0%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부조액 중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혈연관계별 평균부조액은 <표 8>과 같이 당사자의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와 종형제자매 등 4촌이내의 친척은 10~20만원씩이다.

<표 8> 혈연관계별 부조액

(단위 : 만원)

혈 연	부조액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1인당 부조액
형제자매		13.82	26.41	0	100이상	16.65
백·숙부		20.02	26.80	0	100이상	9.81
고모부		11.73	14.24	0	60	7.57
외숙부		14.51	20.45	0	100이상	8.11
이모부		10.56	14.21	0	100이상	6.00
종형제자매		23.66	24.66	0	100이상	2.52
소 계		97.83	162.23	11	901	5.64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혈연관계로 인한 부조는 다른 관계망보다 그 부조액이 많고, 3촌이내의 경우에는 부조액이 관계의 종류와 부조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조자 1인당 부조액은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의 순으로 감소된다.

당사자와 부모의 특성별로 혈연망의 부조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사자의 특성별로 혈연부조액을 보면 <표 9>와 같이 거주지가 농촌보다 대도시일수록 부조액이 매우 많다. 당사자가 남자이고, 연령이 낮으며, 학력이 높은 고소득자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당사자의 특성별 혈연관계 평균부조액

(단위 : 만원)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93	99					110	92	86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89	100					54	71	111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78	99	103	69			92	92	103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103	58	128	166	76				

사자의 월소득이 높고 사무직일수록 증가된다. 또한 외숙부와 이모부의 경우 당사자의 학력이 대졸이고 대도시에 거주할 때 부조액이 증가되어 외척의 부조 기능이 고학력·도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남자이고, 결혼연령이 많으며, 사무직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액이 많아지는데 이는 당사자의 3촌 이내 친척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별이 고려되지 않지만 4촌부터는 성별에 따라 부조액에 차이가 있고 당사자의 연령과 함께 종형제의 연령이 증가되어 그들의 부담능력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모의 특성별 혈연 부조액을 보면 <표10>과 같이 생존여부와 연령이 주요 변수이고, 학력, 직업, 월소득과 재산등에 따라서도 혈연 부조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부모의 특성별 혈연관계 평균부조액

(단위 : 만원)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122	202	116		143	140	111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103	156	154		169	153	116	104	111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이상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97	179	161		145	134	158	238	87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90	186	98	168					

이러한 사실은 혈연 부조자의 수는 부모의 생존여부를 제외하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데 이는 혈연관계라고 할 지라도 부조는 “품앗이”이기 때문에 부조액은 부조를 받는 사람 혹은 그 부모의 상호부조능력에 따라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부조액을 혈연관계별로 세분하여 보면 형제·자매의 부조액은 편친이거나 부모의 연세가 많을수록 증가되고 역으로 백·숙부와 고모부의 부조액은 편친이거나 부모의 연세가 많을수록 감소된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모부의 부조액이 많은 것은 당사자의 경우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특성별 부조자수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의 역할이 감소될 때 형제·자매의 부양기능이 강화되고, 비록 2촌(부모와) 이내의 근친간이라도 부조액은 사적 시장의 원리가 가미된 “품앗이”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IV. 당사자의 관계망과 상호부조

1. 부조자수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당사자와의 관계로 부조한 사람의 평균치는 31명으로 전체 부조자의 20.5%를 차지한다.

당사자와의 관계망별 평균부조자수는 <표11>과 같이, 직연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연(9명)이며 종교연(2명)과 지연은 매우 적다.

전통사회에서 관계망의 형성이 주로 지연에 바탕을 두어 형성되었으나 오늘날의 관계망은 직연과 학연 등 이차적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당사자와의 관계별 부조자 수

(단위 : 명)

부조자 수 당사자와의 관계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학 연	9.50	9.72	0	41
직 연	12.05	16.14	0	100이상
지 연	0.48	1.41	0	9
종교연	2.54	6.87	0	54
기 타	4.57	22.93	0	100이상
소 계	31.48	24.58	0	100이상

당사자의 특성별로 관계망의 부조자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사자의 특성별로 자신의 관계망에 의한 평균부조자수를 보면,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부조자 수가 많고, 연령, 학력, 월소득이 높거나 도시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자수가 많다. 한가지 특이한 것

<표12> 당사자의 특성별 당사자와의 관계 평균 부조자 수

(단위 : 명)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36	26					23	31	40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28	33					16	35	32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36	33	45	11			27	26	41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32	32	28	30	32				

은 당사자의 직업이 무직일 때 당사자의 부조자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생산직, 사무직의 순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고 남자일 때 그 반대인 경우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무직”은 “미취업” 혹은 “실업”이라는 의미보다는 결혼 당시에 “퇴직”한 경우나 “신부수업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당사자의 특성 집단별로 관계망별 부조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지를 살펴보면, 당사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연 부조자가 많고, 결혼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직연 부조자가 많으며, 직업이 없고 기독교, 천주교일 때 종교연 부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남자, 고연령, 고학력자)일수록 그 반대의 집단(여자, 저연령, 저학력자)보다 부조자수가 많은데, 여기에서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는 시장의 원리가 가미된 “품앗이”임을 알 수 있다.

〈표13〉 당사자와의 관계별 부조자의 유의도

당사자의 특성 당사자의 관계망	성별	결혼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월소득	종교
학 연			7.5084***				
직 연		3.4723 **				3.5974 **	
지 연							
종교연					9.3098 ***		3.0235 **
기 타							
소 계	3.6359 *	3.1259 **			2.3825 *	3.3974 **	

* < 0.1 ** < 0.05 *** < 0.01

2. 부조액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당사자와의 관계로 부조된 부조액의 평균치는 65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조액의 18.7%를 차지한다.

당사자와의 관계별 평균 부조액은 〈표14〉와 같이 당사자의 직연이 27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연(14만원), 지연(10만원), 종교연(4만원)등의 순이다.

관계망별로 부조자 1인당 부조액을 비교하여 보면 지연과 직연이 학연과 종교연보다 상당히 높은데 이는 전자의 경우 단체나 회사가 부조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표14〉 당사자와의 관계별 부조액

(단위 : 만원)

당사자의 관계망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1인당 부조액
학 연	14.15	13.29	0	54	1.49
직 연	27.72	27.77	0	100이상	2.30
지 연	10.13	18.31	0	100이상	21.10*
종교연	4.12	11.62	0	75	1.62
기 타	6.13	11.41	0	61	1.34
소 계	65.25	107.54	0	649	2.07

* 단체로 부조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경우임

당사자의 특성별로 관계망의 부조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 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사자의 특성별로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부조된 평균 부조액을 보면,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부조액이 많고, 연령, 월소득이 높거나 도시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액이 많다. 특이한 것은 부조자 수의 경우와는 달리 대졸보다 고졸인 경우에 부조액이 많고, 직업이 사무직일 때 생산직과 무직인 경우보다 부조액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직업의 경우 사무직종사자가 생산직과 무직의 경우보다 1인당 부조액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⁵⁾

〈표15〉 당사자의 특성별 당사자와의 관계 평균부조액

(단위 : 만원)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88	41					25	68	104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71	62					21	75	65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63	75	52	16		39	45	107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77	88	50	79	58				

다음으로 당사자의 특성 집단별로 관계망별 부조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사자가 남자이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연 부조액이 많고, 남자이고 고연령, 대도시, 사무직, 고소득자일 때 직연 부조액이 많으며, 월소득이 높거나 무직일 때 각각 지연과 종교연의 부조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5) 학력별 차이는 상식과 배치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요망된다.

한 사실을 요약하면 당사자와의 관계에 의한 부조액은 당사자의 성별, 연령, 월소득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는 부조사수에서 분석된 결과와 유사하다.

〈표16〉 당사자와의 관계별 부조액의 유의도

당사자의 특성	성별	결혼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월소득	종교
학 연	7.1274***		5.8903***				
직 연	5.6813***	5.1558***		3.4089**	2.7347**	5.7963***	
지 연						3.5086**	
종교연					3.0091**		
기 타							
소 계	4.1164**	3.9369**				3.8536**	

* < 0.1 ** < 0.05 *** < 0.01

V. 부모의 관계망과 상호부조

1. 부조사수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부모와의 관계로 부조한 사람의 평균치는 99명으로 전체 부조자의 65.0%를 차지한다.

부모와의 관계망별 평균부조사수는 〈표17〉과 같이 지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직연(17명), 학연(8명), 종교연(6명)등의 순이다.

부모와의 관계로 부조한 사람은 결혼당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부조사수가 3배이상이며, 관계망도 지연이 핵심이고 직연, 학연과 종교연이 부차적이어서 직연과 학연이 중심이 된 당사자의 경우와 크게 대조된다.

부모의 특성별로 관계망의 부조사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 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17〉 부모와의 관계별 부조사 수

(단위 : 명)

부조사 수 부모의 관계망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학 연	8.56	10.39	0	52
직 연	17.39	27.74	0	147
지 연	48.01	56.44	0	321
종교연	6.54	14.55	0	99
기 타	16.10	21.83	0	97
소 계	98.60	114.23	0	321

먼저 부모의 특성별 부모와의 관계로 본 평균 부조자수를 보면,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친이 있는 경우 편친인 경우보다 부조자수가 훨씬 많고 연령과 재산이 많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자수가 많으며, 학력과 월소득의 경우에는 대졸과 100만원 이상 소득자일 때 오히려 부조자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부모의 특성별 부모와의 관계 평균부조자 수

(단위:명)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113	45	85			98	92	138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100	113	79			84	100	137		68	84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이상	무응답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120	115	91	72		88	87	106	56	116	50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82	98	148	89							

한편 당사자의 경우와는 달리 부모의 직업은 부조자수에 영향력을 주는 변수인데 부모의 직업이 임금노동자이거나 자영업자일 때 고용주나 무직인 경우보다 부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특성 집단별로 관계망별 부조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부모가 있고 연령이 낮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학연 부조자가 많고, 부모가 있고 임금노동자이며 재산이 많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보다 직연 부조자가 많다. 지연의 경우에도 학력이 높고 재산이 많을 때 부조자가 더 많으며, 종교별 부조자 수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9) 부모와의 관계별 부조자의 유의도

부모의 특성	생존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	재산
학 연	4.2036**	3.6614**	3.0772**				
직 연	4.0230**			4.6779**			2.3526*
지 연			2.9665**				3.0973**
종교연						5.2687**	
기 타							
소 계	2.3691*						

* < 0.1 ** < 0.05 *** < 0.01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면 부모와의 관계망별 부조자수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함께 부모의 학력, 직업, 재산, 종교에 의해서 좌우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에 있어서는 소득보다는 재산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되어 자녀의 소득 변수와 크게 비교된다는 것이다.

2 부조액

조사대상 결혼식에서 당사자 부모와의 관계로 부조된 부조액의 평균치는 167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조액의 48.1%를 차지한다.

부모와의 관계별 평균 부조액은 <표20>과 같이 부모의 지연이 65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직연(49만원), 학연(15만원), 종교연(12만원)등의 순이다.

부조자 1인당 부조액을 비교하여 보면 직연의 부조액이 지연과 학연등에 의한 부조액보다 상당히 높는데 이는 당사자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단체나 회사가 부조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부모의 특성별로 관계망의 부조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치와 변량분석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20> 부모와의 관계별 부조액

(단위 : 만원)

부조액 부모의 관계망	평균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1인당 부조액
학 연	15.94	20.27	0	100이상	1.86
직 연	49.09	95.52	0	600	2.82
지 연	65.28	75.90	0	400	1.36
종교연	12.00	21.11	0	100이상	1.83
기 타	28.99	32.61	0	100이상	1.80
소 계	167.78	150.83	0	747	1.70

먼저 부모의 특성별로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서 부조된 평균 부조액을 보면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친이 있을 때 편친의 경우보다 부조액이 많다. 또한 연령이 낮고 학력, 소득, 재산이 높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보다 1인당 부조액이 증가되어서 55세미만인 자, 대졸자, 월소득 120만원이상인 사람은 다른 집단보다 평균 부조자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조액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특성 집단별로 관계망별 부조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양친이 살아 계시고 연령이 낮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학연 부조액이 가장 많고,

〈표21〉 부모의 특성별 부모와의 관계 평균 부조액

(단위 : 만원)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190	90		124		170	194	132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180	162		185		254	161	165		121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이상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176	171		215	127		140	143	220	17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126	136	235	160						

양친이 살아계시고 소득이 높을수록 직연 부조액이 많다. 지연과 종교연의 경우에도 재산이 많고 천주교, 기독교의 신자일 때 불교의 경우보다 부조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면 부모의 관계망별 부조액은 부조사수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양친의 생존여부와 함께 부모의 학력, 소득, 재산, 종교에 의해서 좌우되고, 부조사수에서 보다 더 “시장원리”가 관철된다는 것이다.

〈표22〉 부모와의 관계별 부조액의 유의도

부모의 특성	생존여부	연령	학력	직업	월소득	종교	재산
학 연	3.5500**	2.4009*	9.2663***				
직 연	2.7411*				4.9406***		
지 연							5.9027***
종교연						4.0661***	6.3629***
기 타							
소 계	3.0643**						4.8144***

* < 0.1 ** < 0.05 *** < 0.01

VI. 결 론

사회관계망이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을 혈연망, 당사자의 관계망, 부모의 관계망으로 대별하고 다시 혈연망은 형제자매, 백·숙부, 고모부, 외숙부, 이모부, 중형제자매 등으로 세분하며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망은 학연, 직연, 지연, 종교연 등으로 나누어서 각 관계망별로 평균부조사수와 부조액 그리고 1인당 부조액을 조사한 결과 〈표23〉과 같다.

〈표 23〉 사회관계망별 평균부조자 수와 평균부조액

사회관계망		평균부조자수 (명)	평균 부조액 (만원)	1인당 부조액 (만원)
혈연관계	형제 자매	0.83	13.82	16.65
	백·숙부	2.04	20.02	9.81
	고모부	1.55	11.73	7.57
	외숙부	1.79	14.51	8.11
	이모부	1.76	10.56	6.00
	총형제자매	9.38	23.66	2.52
	소 계	17.35	97.83	5.64
당사자의 관계망	학 연	9.50	14.15	1.49
	직 연	12.05	27.72	2.30
	지 연	0.48	10.13	21.10*
	종교연	2.54	4.12	1.62
	기 타	4.57	6.13	1.34
	소 계	31.48	65.25	2.07
부모의 관계망	학 연	8.56	15.94	1.86
	직 연	17.39	49.09	2.82
	지 연	48.01	65.28	1.36
	종교연	6.54	12.00	1.83
	기 타	16.10	25.47	1.58
	소 계	98.60	167.78	1.70
기 타		11.35	16.35	1.44
합 계		151.43	347.21	2.29

* 단체의 사례로 인하여 과대평가됨

〈표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조자수는 당사자의 4촌이내의 친척, 당사자의 직연과 학연, 부모의 지연과 직연이 전체부조자의 약 7할을 차지하고 부조액의 경우도 7할이상을 점유한다. 1인당 부조액에 있어서는 관계망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혈연관계는 촌수의 원근에 따라서 증감되고 당사자와 부모의 관계망에서는 직연의 부조액이 학연, 지연, 종교연 등의 경우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망별 평균 부조자수와 부조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은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는 (1) 혈연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2) 부모의 관계망의 중심은 지연과 직연이나 당사자의 관계망의 경우는

직연과 학연이며, (3) 도시사회에서 혈연망의 범위는 축소되고 지연망은 크게 쇠퇴되고 있다.⁶⁾

결혼식에서의 총 부조자수와 부조액이 당사자와 부모의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조자수는 당사자와 부모의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당사자의 거주지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망별 차이가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부조액을 당사자와 부모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부조자수와 비교하여 보면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성별과 연령 등 지속적 요소는 총부조자수와 부조액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남자이고, 연령이 26세이상일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조자수와 부조액이 많다.

둘째, 당사자의 학력, 거주지, 월소득 등 획득적 요소는 총 부조자수와 부조액에 역상관관계가 있어서 비록 저학력, 농촌, 저소득자에게 총부조자수가 많을지라도 부조액은 고학력, 도시, 고소득자에게 더 많다.

셋째, 부모의 특성은 총부조자수에서 보다는 총부조액에 더 큰 영향을 주고 특히 부모의 월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부조액이 증가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볼 때 결혼식에서의 상호부조는 혈연의 경우 촌수와 부조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품앗이”이지만 당사자와 부모의 지연, 직연, 학연, 종교연에 의한 상호부조는 “시장원리”에 바탕둔 품앗이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당사자의 특성별 평균 부조자 수

(단위 : 명)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160	142					125	171	157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161	146					203	178	132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207	144	167	145			161	125	165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135	181	160	105	154				

6) 이러한 사실은 기존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재석, 앞의 책, pp. 235-238.

〈표25〉 부모의 특성별 평균 부조사 수

(단위 : 명)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162	111		137		157	148	160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173	145		135		144	162	138		157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 이상	무응답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169	135	156		150		114	139	167	105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135	123	217	151						

〈표26〉 당사자의 특성별 평균 부조액

(단위 : 만원)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5세미만	26~28세	29세이상
		373	319					287	385
학력	고졸	대졸				거주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333	356					289	331
직업	생산직	사무직	무직	무응답		월소득	30만원이하	31~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387	343	495	284			322	327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305	347	438	350	332			

〈표27〉 부모의 특성별 평균 부조액

(단위 : 만원)

생존여부	양친	편친	모두없음	연령	55세미만	55~60세	61세이상		무응답		
		342	377		291		317	357	388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직업	고용주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무직	무응답	
		343	364		331		383	323	320		431
월소득	60만원미만	60~120만원미만	120만원 이상	무응답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무응답
		292	310	418		380		291	327	415	350
재산	5천만원이하	6~2억미만	2억이상	무응답							
		267	319	519	348						